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1년 6월 4일(금) --(음력 4월 24일)-- Пятница 4 июня 2021г. № 22 (11939)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6월 1일은 러시아에서 어린이보호의 날을 기념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투자자들과 500억 루블리 이상의 계약 계획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를 중심으로 사할린주 정부 대표단은 사할린 지역이 민관협력의 여건 속에 계획하고 추진하는 투자계획 실현에 대한 발표를 모스크바에서 했다. 이 로 드쇼를 통해 사할린주는 총 1,070억 루블리에 달하는 91개 기획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민관협력의 기획들을 발표했다. 이 기획의 실현이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기획들은 교육, 의료, 공공주택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사할린주에서는 민관협력 및 양허 기획에 투자 유치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조성했다. 우리는 사할린 정부 측의 특별 프로그램 지원과 협력에 있어 상호이익의 조건을 보장한다. 현재 우리는 총 투자액 50억 루블리에 달하는 지역적 및 현지 민관협력 기획을 실행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500억 루블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투자계획 설명회에서 말했다.

몇 달 내로 마카로브,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지역의 종합 난방 공급 시스템을 허용하는 3개의 양허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주택이 조성되고 주 아동병원의

상담 및 진료센터 건설에 따른 민관협력 기획 준비가 높은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 협약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344개 병상을 갖춘 외과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할린주 중심의 가스화에 따른 양허 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러시아연방 돔과 공동으로 국립 민관협력 센터가 전망 높은 주택 건설지들의 제반시설 조성을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반시설 구축의 채권 체계가 이용되고 있다.

올해는 '우윤', 세웨르니 고로드코(북부 동네) 현지의 제반시설 구축에 따른 첫 양허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앞으로 이곳에는 80만㎡의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투자액은 120억 루블리다.

앞으로 사할린 정부의 제반시설 공채 자금으로 370개 주택 건설 현장들에 제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반시설 확충에 대한 협정에는 470억 루블리까지 차용된다.

사할린주의 민관협력개발이 극동의 양허 협약 체계를 촉진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기획 조정상 코르사코브 항구 현대화, 석유·가스산업단지 조성, 사할린 관광 클러스터 조성

을 강구하고 있다.

50명이 넘는 러시아 및 해외 투자자들과 대형 금융기관의 개발연구소의 참가자들이 투자 설명회에서 사할린주의 민관협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정된 예산 조건 속에 민관협력 기획들은 전반적인 지역 경제와 제반시설 구축과 현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장관급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극동 및 북극 개발공사와 러시아 국가협력개발 국가산업은행과 기타 협력자들이 극동 양허 협약으로서 이러한 기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체계가 민관협력 기획들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극동 양허 협약 체계의 일환으로 5천억 루블리의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다. 우리는 사할린주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으며 기획 실현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극동 및 북극개발부 차관 가드쥬마고메드 구세이노브가 말했다.

투자 설명회 주최는 국립 민관협력센터와 사할린주 정부가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및 극동 개발협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단신

사할린주지사, 러시아 부총재에게 관광 클러스터에 대해 보고

지난 3일(목) 러시아 정부 드미트리 체르니센코 부총재는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만나 관광 클러스터 개발 문제, 스포츠 시설 건설, 사할린 국립대 발전 문제를 논의했다.

체르니센코 부총재는 사할린 국립대 캠퍼스(1500석) 건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 설계안은 이미 준비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중심에 건설 부지도 마련되었다. 이 기획은 오는 2년 반 동안 시행한다고 주정부가 전했다.

사할린, 의료 자원봉사자들 만남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의료 자원봉사자' 지역 대회가 개최되어 주내 여러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3일간 자원봉사자들은 보건 분야에서 전 러시아 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고, 팀을 이루어 일하는 법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기 공동체의 개별 브랜드 개발법을 배우고 앞으로 계획의 윤곽을 세웠다. 모임에는 오하,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노글리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모스크바와 에카테린부르크에서 특별히 사할린을 방문한 전문가들이 사할린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했다.

2021년 3개월간 자연적 인구감소

사할린주에서 1월-3월까지 자연적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민신분 등록소에는 출생아 1,330명, 사망자 1,894명으로 기록되었다. 자연적 인구감소는 564명으로, 2020년 유사기간의 자연적 인구감소는 228명이었다.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의 수가 더 많은 주내 3개 지역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쿠릴스크 구역,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이다.

주내 혼인신고는 699건, 이혼 578건으로 2020년 유사시기의 혼인신고는 758건, 이혼은 615건으로 기록되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주 내무국의 이민관리국에 따르면 2021년 1월-3월간 사할린과 쿠릴에 체류한 사람은 4,600명으로 이 중 38.0%가 상시 거주자이며, 4,397명이 지역을 떠났는데 이 중 78.1%가 이전 거주지 등록을 취소했다.

사할린 주내에서 1,335명이 주거지를 변경했으며, 사할린주로 이민자는 203명이다.

사할린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명

6월 2일 기준 사할린주에 3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 동시에 24명이 퇴원하였다. 6월 2일 기준 사할린 지역에서 총 확진자 수는 23,059명, 22,597명이 퇴원, 사망자 54명, 408명이 치료 중에 있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49루블리 3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1960년대의 <아리랑>악단을 회상하여

지난 주말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 수석 연구전문가 하이 올가와 함께 울리 안토노비츠 스칼레츠키 음악가(1934년생)의 자택을 찾아갔다. 거의 70년간 음악에 몸을 바친 울리 스칼레츠키는 사할린 한인사회계에서 1962-1964년 <아리랑>악단 단장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에 그는 하이 올가 전문가가 준비한 <사할린 한인인의 삶 1945-2015> 전시회에 <아리랑>악단의 포스터를 전시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부터 이 두 분은 가끔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

뇌졸중을 앓은 바가 있는 울리 스칼레츠키는 얼마 전에 미세스트로크(마이크로 뇌졸중)가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집 문을 연 울리 스칼레츠키는 정정해 보였다.

한민족지 기자가 왔다고 해서 그는 <아리랑>악단에 단장으로 있었던 시기를 회상해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몰도바에서 재능있는 음악가(아코디언 연주자)로 인정받은 그는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도 하였다.

1961년에는 초코트카 필하모닉에 초대를 받아 마가단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이름난 음악가(연주자, 가수, 지휘자 등)들과 만나 마가단에서 연주활동을 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사할린주 필하모닉에서 악단 단장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 당시 돈벌이도 잘 되고 있었는데 음악가, 악장, 지휘자 등으로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기회에 바로 승낙을 하여 사할린으로 출발했다.

사할린에 오고 나서야 자신이 조선오케스트라를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1948년에 창단된 악단(장기간 사할린 조선극장 소속)은 이미 14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동안 연주자들의 변경도 여러 번 있었다. 사할린에 처음으로 온 울리 스칼레츠키는 그 당시 28세였다. 악단은 그때 이미 한인동포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대부분 동포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들도 있었지만 주로 사할린 동포였다. <아리랑>악단은 사할린주 내 계속 순회공연을 하였다. 사할린 도시, 마을 - 안 가는 데 없었던 것 같다. 벌목장에서도 공연을 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2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부는 에스트라다 공연으로 하고 2부는 민족 부문(조선 노래, 춤, 전통음악 등)으로 공연했다.

스칼레츠키 단장에 따르면 관객들은 1부 공연보다 2부를 더 좋아했다고 한다. 2부는 인기가 많은 김기봉 아티스트가 진행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 공연을 잊을 수 없는 공연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조선악단 공연은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고 공연장은 항상 만원이었으며 실내공연도 하고 야외공연도 많았다. <아리랑>악단 공연은 항상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다.

악단의 사할린동포 모두가 무국적자였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무국적자는 허가 없이 인근 마을에도 가지 못했다. 그래서 필하모닉 지도자인 일리아 루킨이 항상 이 허가를 챙겨야 했다. 그는 개



인적으로 조선 양상블 단원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아리랑>양상블의 공연은 항상 수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선 양상블의 공연은 동포 중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할린 주민 중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공식 인사들도 좋아했고 군인, 안기부 사람들도 좋아했다고 한다. 필하모닉 루킨 지도자는 예를 써 국경수비 지역으로 허가가 잘 안 떨어지는 쿠릴열도까지도 순회공연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제가 사할린에서 처음 조선 음악과 예술,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한민족 전통음악이 바로 와닿았어요. 특히 민요, 타령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양상블에는 훌륭한 악사, 가수가 많았어요. 대부분은 제대로 음악교육도 받지 못했고 음악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모두 훌륭한 악사이고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들 간에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항상 배우려는 의욕이 넘쳤습니다."라고 스칼레츠키 어르신이 회상했다. 그가 사할린에서 처음 한민족 문화를 접하게 되었을 때 특히, 한식이 인상적이었고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그때는 자주 식사



(사진: 유.스칼레츠키 제공)



초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집에서는 이 음식을 아주 잘 합니다."면서 그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걸 알고 부른 모양이다.

한 달, 두 달 집을 멀리 떠나 순회공연을 할 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지방에 갈 때는 꼭 쌀, 반찬, 고추장, 된장, 김치 등등을 챙겼다. 그것 없이는 못 사니까. 한 번은 사할린주 북쪽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어느 날 이것이 다 떨어졌다. 식당에 가서 러시아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에 익숙치 않아 다들 배가 아팠다고 했다. 공연 하지 못할 정도로. 스칼레츠키 단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필하모닉 지도자에게 "내일 아무래도 공연 못할 것 같다."고 연락하니 그는 바

로 "사람들 배가 아프고 기운이 없겠지."라며 바로 눈치채고는 공연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하고 마카로브까지 바로 내려가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마카로브에 도착하니 밤 2시였다. 한인처럼 한식을 좋아하게 된 러시아 악사도, 단장도 마카로브에 친척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죄송한데 배가 너무 아프니 김치라도 가져 오시오."라고 부탁했다. 양푼 4개에 담긴 김치, 반찬 여러가지를 가져와 깊은 밤에 즐거운 만찬을 즐겼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스칼레츠키 음악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서봉기 가수와 좀 친했다고 한다. 서봉기 가수가 부르는 타령을 좋아했다. 특

히 노다지 민요가 마음을 녹인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아노로 이 멜로디를 쳐주었다. 인상적이었다.

서봉기 가수와는 낯시하러 간 적이 있었다. 버스 같이 타고 많이 걷고 바닷까지 러시아 근로자와 셋이 갔었는데 사람은 누구도 안 보이는 벌판에서 갑자기 국경수비대 군인들이 나타나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 제시를 요청했다. 서봉기 가수는 무국적자였고, 물론 허가증도 받지 않았다. 스칼레츠키 단장이 이분은 필하모닉 악단 가수란 걸 설명했지만 서봉기를 국경수비대로 데려갔다. 물론 낯시꾼들도 따라갔다. 거기에서 전화로 신분을 확인하고, 늦어서 그곳에서 하루 밤을 자고 도시로 돌아간 적도 있었다며 회상했다.

울리 스칼레츠키는 이날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많은 사진도 보여주었다. 그는 필하모닉 소속 <아리랑>악단의 마지막 단장이었다. 1964년에 모스크바에서 <아리랑>양상블을 해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걸 듣고 그는 루킨 필하모닉 지도자와 함께 울었다고 한다. "이 놈들, 왜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미래를 막아버리는가?!" 물론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후 악단에서 일하던 단원들의 운명은 서로 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 전선으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연주그룹을 만들고 잔치에서 공연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했다. 현재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다.

사할린 조선 극장, 조선 악단은 사할린 역사의 일부다. 조선 악단을 잊지 않고 당시 그들의 재능과 용기를 귀감으로 삼기를 바란다.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티몹스코예 계곡 위의 상송' 축제 개최

제11회 '티몹스코예 계곡 위의 상송' 지방 간 축제가 화창한 날씨 속에 예술적 감동과 노래를 선사했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유빌레이니' 문화회관 무대에 사할린의 상송 가수들이 출연했다. 축제 프로그램에는 세 가지 유쾌하고 흥미로운 행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28일 개막식 콘서트에는 심사위원인 세르게이 스타르친스키(유즈노쿠릴스크), 세르게이 루키야넨코(유즈노사할린스크), 세르게이 볼긴(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이 출연해 주최 측은 이들을 '세르게이 셋'이라 불렀다. 5월 29일에는 대규모 콘서트 경연이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축제의 관객들과 심사위원을 매료시키려고 노력했다.

5월 30일 마지막 날에는 티몹스코예 회관에서 갈라 콘서트가 울려 퍼졌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 경연 우승자와 우수 곡목, 심사위원들의 음악선물, 음악과 감동의 물결이 넘실댔다. 경연 참가의 최고상과 기타 수상은 노글리키, 유즈노쿠릴스크, 알렉산드롭스크 사할린스키, 와흐루셰브, 위스톡, 티몹스코예,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참가자들이 수상했다. 대상은 오하에서 온 이고리 말체

브가 수상하고 인기상도 거머쥐었다. '티몹스코예 계곡 위의 상송' 정기 축제가 마무리되면서 좋은 친구들 만났고, 새로운 이름들이 호명되었으며, 관객들은 빛나는 감동과 추억을 얻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Шансон над Тымовской долиной"

XI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Шансон над Тымовской долиной" подарил солнечную погоду, песни и творческое вдохновение. Три дня, с 28 по 30 мая, на сцене Дома культуры "Юбилейный" выступали остров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шансона.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включала в себя три ярких и интерес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28 мая — открытие — концерт членов жюри Сергея Старжинского (Южно-Курильск), Сергея Лукьянен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Сергея Волгин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который организаторы так и назвали "Три Сергея".

29 мая состоялся большой конкурсный концерт, где исполнители старались покориť зрителей и жюри фестиваля. И финал. 30 мая на тымовской сцене "прогремел" гала-концерт.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лучшие номера, музыкальные подарки от членов жюри, море музыки и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менно этим запомнился последний день фестиваля.

Среди дипломантов и лауреатов конкурса участники из Ноглик, Южно-Курильск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Вахрушева, Востока, Тымовског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Гран-при был удостоен Игорь Мальцев из Охи. Игорь также был награжден дипломом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Очередной фестиваль "Шансон над Тымовской долиной" ушел в историю. Встретились добрые друзья, прозвучали новые имена, зрители получили яркие впечатления и эмоции.

사할린 동물원, 여름 일정표로 운영

사할린 동물원이 여름 일정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동물원은 6월 1일부터 방문자들을 위해 오전 10시 - 오후 8시 30분까지 개장된다.

입장권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30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휴일과 명절에는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구입할 수 있다.

여름 개장 시간표
<시골 안뜰> 행사장: 화요일 - 일요일(월요일은 위생의 날로 휴무) 오전 11시 - 오후 4시까지.

<아쿠바리움>전시관: 화요일 - 일요일(월요일 휴무), 오전 11시 - 오후 20시 30분까지.

<에크조타리움(세계 동물)> 전시관 : 매일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까지.

<영장류> 관람: 화요일 - 일요일(월요일 휴무), 오전 11시 - 오후 8시 30분까지 개장.

방문자들은 동물원 입구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거나 온라인상 동물원 공식 사이트에서 24시간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8면에 계속)

한국 변호사도 사할린동포 문제에 관심

지난 5월 28일(금) 저녁 7시(한국 시간)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내부 소모임 "재외동포 연구모임"(대표 장유식변호사)과 KIN(지구촌동포연대)이 공동주최한 온라인 <사할린동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법률"(사할린동포법)에 대한 사할린 현지 동포들의 의견과 한국 내 영주귀국 동포들의 견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사할린 한인협회에서는 박순옥 회장, 오진하 고문, 이 세르게이 청년회장, 박경춘 이산가족협회장, 김웨철 여성회 고문이 참석했고, 김춘자 우리말방송국장과 배 워도리아 새고려신문사 사장도 참석하였다. 전국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에서는 권경석 회장, 인무학 부회장, 주훈준 안산회장, 문정현 인천회장, 이수진 남양주회장이 참

석하였고, 안산과 인천에서는 성점모 고문 등 여러 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민변에서는 장완익, 장유식, 이주희, 조영관, 조세현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박봉수 디아스포라연구소장, 임성숙 한림대 교수도 참석하여 동포들의 발표를 경청하였다.

작년 전체철 의원 간담회 때에도 한인협회에서 제기한 문제였지만, 부모사망 2세들이 영주귀국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사할린 현지에서의 국적 취득과 이중국적 유지도 큰 관심사였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로금 문제, 우편저금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으로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동포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의 유지 및 계승을 위한 현지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할린동포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문제와 관련

되어 해결되지 못한 문제,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과의 문제 등 사할린 동포와 관련된 문제 전반이 이야기 되었고, 사할린동포법은 무엇보다 사할린동포 전체를 위한 법이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오랫동안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의 실무관으로 일했던 이선영씨도 참석하여 그동안 민원접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할린동포 관련 행정업무의 문제와 개선점을 발표하였다.

동포들의 의견청취를 마친 변호사들은 재외동포연구모임에서 앞으로 대응 마련을 위하여 관련법 등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했고, 사할린 방문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동포들의 삶을 느끼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며 온라인에서의 아쉬운 만남을 마쳤다.

최상구, KIN단체 사무국장

러시아 관광청장, 사할린 스키 관광단지의 잠재력 높이 평가



지난 주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는 자리나 도구조와 연방관광청장을 동반해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와 연계된 인근 호텔을 방문했다.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도시 내에 이렇게 위치한 독특한 스키 단지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고르니 워즈두흐의 핵심적 특징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공항과 직통으로 가까우며 주요 제반시설과 상권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 속 산맥은 독특한 도시 풍경을 연출한다. 현재 우리는 이곳을 지역과 함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계획인 가운데 몇 년에 걸쳐 스키 코스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며, 현대적인 고급 호텔 건설량도 늘리고, 고르니 워즈두흐와 연결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안하고 관광의 매력적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계절성 휴양지 확대이다. 우리는 관광 분야에 새로운 국가기획의 기구들을 통해 사할린주를 반드시 지원하겠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시작한 여름철 프로그램은 겨울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안정화시켜 1년 내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호텔 건설에 대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자리나 도구조와가 언급했다.

현재 고르니 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는 총35km 이상 되는 길이에 다양한 난이도의 18개 스키 코스를 갖추고 있다. 2025년까지 고르니 워즈두흐 레저단지 제반시설 건설의 일환으로 총 43억 루블리에 달하는 9개 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는 불세빅산, 크라스나야산, 오스트라야산과 크라스나야산의 케이블카, 불세빅산의 인공 제설기, 기술적, 교통 제반시설 건설이다.

"사할린의 '고르니 워즈두흐'는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핵심 시설이다. 스키 코스와 더불어 코스의 길이를 확대하고 인공 제설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스키 시즌이 1년에 5개월 이상 지속되도록 과제를 정했다. 일본의 스키 리조트보다 더 일찍 개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의 목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우수 스키 리조트 3위 안에 드는 것이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러시아 관광청장은 고르니 워즈두흐 단지를 케이블카로 몇몇 코스를 시찰한 뒤 최근에 개장한 4성급 파라다이스 리조트 호텔을 방문했다. 이곳은 사할린 방문자들을 위한 83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다리나 도구조와 청장도 호텔의 쾌적함과 여행객들에게 제공할 준비가 된 종합 서비스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새로운 호텔들이 들어서 336개의 객실이 생기며 필요한 관광 제반시설이 조성되고, 호텔 네트워크도 생겨 2024년까지 시설들이 건설될 전망이다.

전 러시아 하프마라톤대회에 사할린 주민 500명 이상 참가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자백(달리기).러시아 연방'에 사할린주도 참가했다. 800명 이상의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이 동시 출발에 참가하기 위해 등록했다고 주 스포츠부에서 전했다.

이 행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가장 먼저 사할린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마라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가운데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5월 30일(일) 기상 여건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역사적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으나 등록된 사람들 중 500명 이상이 출발선에 섰다.

이날 전국 11개 시간대에 따른 85개 도시의 주민들이 일제히 출발했다.

아마추어 경주자들은 1km, 5km, 10km, 21.1km 중 코스를 선택해 참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러시아는 나의 역사' 기념박물관 구역은 개막식 진행과 경주 출발 및 결승선이 되었다.

제18회 춘계 학술 발표회 사할린 국립대에서 개최

4월 27일과 29일, '제 18회 춘계 대학생 학술 발표' LI 실용과학 학술 발표회가 사할린국립대학교 본관에서 열렸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 교육기관의 학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참석했다. 연구 발표자들은 러시아어와 영어로 말했다. 모든 발표는 세 부문으로 나뉘어 나란히 진행되었다.

1. 한국 문화 공간의 다양성 (전통과 현대)
 2. 한국사회 발전의 언어적, 사회 문화적 역할
 3.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수방법심사는 언문, 역사 및 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교수와 최 인나 한국어 교수가 했다.
- '한국어 부문'에서는 16 명의 발표자가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대학 4학년생인 알렉산드라 드료모바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기했고, 2학년생인 크리스티나 실라예바는 <해외 한국어

진흥에 있어 한국 재단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학교 학생들도 참가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 11학년생인 배순이, 제2 김나지아 10학년생인 푸자노와 라다가 좋은 발표를 했다.

<한국의 사이버 종교와 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대학 신입생인 나르스카야 안나가 우승을 하였다. 발표 후 참석자들과 교수들은 주제에 따른 관심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었다.

'교수 방법' 부문에서는 '교수 교육'을 준비하는 5학년생들이 <한국과 러시아에서 원격 교육과 그 조직>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학술회 참가자들은 수료증을 받았고 우승자 시상식은 5월 14일과 21일 사할린국립대학교 본관에서 열렸다.

(사할린국립대 학생 위로비요바 다리야)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소 알려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은 등록 및 대기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주민들은 매일 접종 활동을 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이동 백신 접종 차량에서 받을 수 있는데 '감-코비드-박' 백신은 무료로 접종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백신 이동 접종소는 포베다 광장의 '1호 보건소 차량'(매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메가베료즈카 쇼핑센터 지하 식품 매장 옆 '2호 방문 보건소'(평일 정오 12시 - 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스토리차 쇼핑센터 3층 '4호 방문 보건소'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감-코비드-박'백신은 예약 없이 이동식 접종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여권, 개인 의료보험 번호, 필수의료보험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접종 전에 의료진과 상담을 한 후 설문조사 및 내과 검진을 진행한다.

2차 접종 '스푸트니V' 백신은 1차접종 21일 후에 전화나 국가 서비스 개인 계정으로 접종자에게 알려준다. 특별히 의료진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월 2일 기준 사할린주 보건부는 현재 7만6천 명이 백신 접종을 했고 이 중 6만4천 명이 2차 접종까지 마쳤다고 보고했다.

재외동포재단, 미국 동포사회와 '찾동' 화상간담회 시행

- 5월 24, 26, 27, 4회에 나누어 화상간담회 개최
- 6월부터는 한글학교, 차세대 단체, 경제단체들과도 찾동 간담회 이어갈 계획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근)은 동포사회 주요 현안 협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비대면 화상간담회'찾동(찾아가는 동포재단)'행사를 미국지역 한인회장들과 5.24(월), 26(수), 27(목) 각각 개최했다.

미국지역'찾동'행사는 한인회 수를 고려하여 동부지역 2회, 중부, 서부로 나누어 네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총 66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하였다.

한인회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인회 활동 등 정보를 나누고, 아시아 혐오범죄 대응,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완화, 2-3세 차세대 참여를 위한 노력 확대, 선전적 복구국적법 개정, 미주 총연분규 및 통합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사훈황 필라델피아한인회장은 "지역한인회장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준 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포재단은 지난 3월 아중동 지역을 시작으로 각 대륙별 한인회장들과 12차의'찾동'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부터는 한글학교, 차세대 단체, 경제단체들과도 '찾동'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Юное дарование впервые ст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им лауреа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в Канаде

Ким Су Ён стала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анисткой, завоевавшей главный приз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в Монреале.

Ким получит награду и стипендию на общую сумму свыше \$180 000 наряду с концертным турне по трем городам Северной Америки, выступлением с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Монреаля и записью сольного альбома.

Второе и третье места достались Ёчиро Чибя из Японии и Димитри Малигнану из Франции.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25 пианистов участвовали в фортепианном виртуальном состяза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Пак Че Ён, который вошел в число восьми финалистов, остался без приза.

Ким начала заниматься фортепиано в возрасте 5 лет.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кусств Кореи в 2013 году она продолжила обучение в консерватории Зальцбурга.

Хотя Ким стала перв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анисткой, победивше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в Монреале, несколько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ранее вписали в него свои имена.

Скрипачи Чо Чжин Чжу и Чой Е Юн занима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места в 2006 году, а тенор Ким Кон Ву и сопрано Пак Хе Сан в том же году занима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ервое и второе места. Скрипач Ким Бом Со заним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2016 году.

ИА РУСКОР

Проба пера – это просто здорово

От редакции: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в Центре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водились занятия группы «Пишем вместе». Ее особ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2-го поколения. пробуют пер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иглашенным лектором стала начинающий литератор Виктория Цой. 3 июня состоялось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занятие этого сезо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робу пера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Пишем вместе".

Лектор Виктория Цой:

Наша группа «Пишем вместе»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госпожина Ли Беня Иля.

Во время нашей встречи он рассказал мне, что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рогает его до глубины души и он хотел бы, чтобы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участники тех событ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воспоминаниями.

Но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 не осталось дедушек и бабушек,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молодыми на остров и были оставлены здесь после войны. Зато есть их потомки - сыновья и дочери. Может быть они, вспоминая родителей и их рассказы о жи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могли бы записать свои воспоминания для детей и внуков.

Было очень мало времени для набора группы. На первое занятие пришло 7 человек. Не представляете, как я была этому рада!

Мы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делали упражнения – читали, переписывали и пересказывали тексты, а потом начали пис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истории.

Я получила огромн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от наших занятий.



Все мои студенты пишут интересно и содержательно, с каждым занятием их тексты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лучше.

Я бы хотела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директору Центра, а также его сотрудникам – Веронике и Марине, которые помогли нам в переносе рукописных текстов в компьютерные файлы.

Всего было проведено 9 занятий. На лето мы делаем перерыв, а осенью я приглашу вновь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нашу группу, чтобы вместе писать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споминания о маме

Сон Нина (70 лет)

Моя мама осталась в моей памяти молодой и очень стройной женщиной. У неё были чёрные чуть изогнутые брови, по которым всегда было видно, когда мама грустит или радуется. Добрые карие глаза всегда смотрели прямо, они никогда не умели врать, маленький прямой носик. Губы у мамы были тонкие, говорили о её решимости и твердости. Длинные черные волосы были аккуратно собраны на затылке.

Когда мама куда-то собиралась, надевала цветную блузку, поверх сарафан и как-то всегда казалась молодой. Голос у мамы был тихий и ласковый, она не ругалась, только изредка, когда мы шалили, немного сердилась.

Руки у мамы тёплые, нежные. Они умели всё: и нас приласкать, и приготовить вкусный обед, и хлопотать по хозяйству.

Мы маму очень любили, во всем помогали, старались не огорчать.

Мама моя была очень добрая и справедливая. Соседка не раз говорила: «Ваша мама ни разу ни с кем не ругалась, она умела прощать».

Как-то в нашем маленьком поселке появился бродяга, грязный, и от него плохо пахло, соседи убежали домой, закрывали двери, но мама его впустила. Вынесла ведро с водой, чтобы он помылся, дала чистую одежду, накормила и в сумочку положила немного еды. От такого поведения женщины он ошалел. Но счастливый, со слезами поблагодарил маму и пошел своей дорогой. Мама сказала: «Мы не знаем, что с ним произошло. С любым человеком может случиться несчастье, поэтому люди должны помогать друг другу».

Мама любила, когда мы все собирались за большим, накрытым вкусностями, столом, мы разговаривали на разные темы, смеялись, 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и она всегда нам давала советы, во всем поддерживала.

Во дворе у нас стоял маленький домик для хозяйства, куда складывали весь инвентарь, старые вещи, которые ещё понадобились бы. Когда мы все приезжали, мама всегда затапливала там печь, и мы, прижавшись друг к другу, сидели и слушали её мягкий родной голос. Она всегда нам что-нибудь рассказывала.

Рассказ о мамином детстве, когда она еще маленькой девочкой жила с родителями, братом и сестрой в небольшой деревушке: «У нас был маленький участок земли, на котором высаживали овощи, и там росли фруктовые деревья. В деревне работы не было, и всё, что росло на участке, помогало нам жить. И ведь все так жили, и не было ни зависти, ни вражды, двери в домах всегда были открыты, ходили друг к другу в гости и дружили, угощали своими продуктами и так жили да поживали.»

Нам было тепло и уютно, и, слушая эти рассказы, мы засыпали. В такие минуты мама была счастлива.

Мама не любила, когда кто-нибудь болел. Она забрала бы всю нашу боль, если было бы возможно. Она не ложилась спать и лечила, просила у Бога помощи.

Маме не нравилось, когда кто-то уходил и долго не

давал о себе знать: «Нельзя же так, я же волнуюсь, хотя бы сообщите, что вы в порядке».

Как-то в один из вечеров мама собиралась к подруге н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Она всегда надевала в гости всё самое лучшее. И вот, нарядная, входит в комнату, где мы все сидели, и с тревогой в глазах спрашивает: «Дети, на столе лежало кольцо. Оно пропало, кто-нибудь видел его?» Мы переглянулись. Она продолжает: «Это кольцо мне очень дорого, не потому, что дорого стоит, его мне отец подарил, и, чтобы его купить, он много работал, долго собирал деньги, откладывая понемногу».

В комнате стояла тишина, мы притихли и даже боялись повернуться и посмотреть друг на друга. Мы не знали,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едь никогда подобного не случилось. Тут вышел старший брат Володя и сказал:

- Я его взял, хотел подарить девочке, чтобы она обратила на меня внимание.

- Если ты взял чужую вещь без спроса, это воровство, - сказала мама строго. - Нельзя без спроса брать чужие вещи, надо попросить, поговорить с нами. Мы обязательно помогли бы тебе.

Брату было стыдно за свой необдуманный поступок, а нам всем было грустно.

В семье я была самая младшая. Мама сажала меня на спину, и мы так ходили в магазин за покупками или просто гуляли. Однажды, возвращаясь домой, мы увидели, как в нашем переулке из какого-то дома валит дым. Мама спустила меня на землю, и мы побежали. Когда мы уже были близко, увидели, что горит наш дом, в маминых глазах я увидела страх, ужас, ведь в доме были дети. Она начала кричать, у неё подкосились ноги. Потом прибежали какие-то люди и помогли добраться до ближайшего дома. Мама только кричала: "Помогите! В доме дети!"

Соседи прибежали с ведрами, встали в ряд, черпали из колодца воду и, передавая друг другу ведра, выливали на огонь. Так, до приезда пожарных, всё закончилось. Все успели выбежать из дома,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Сгорело почти все: мебель, наши вещи, мои игрушки, но мы все равно рады были, что опять все вместе.

Мы все подбежали и крепко обняли плачущую маму, она была сильно напугана и говорила:

-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 мы целы и невредимы, а дом поставим!

Пожарные все осмотрели, чтобы понять, почему случился пожар и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из-за шалости детей, кто-то баловался с огнём, поджигая спички.

«Нам нужно продолжать жить, думать, каждый вынес для себя урок», - сказала мама.

Соседи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нас не оставили в беде, помогли кто как мог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дом, за что им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Давно уже нет нашей мамы, но что бы ни произошло, всегда вспоминаем с огромной любовью и нежностью маму. Лучше мамы нет никого на свете.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е полугодие — 549 руб. 3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аммит Р4G завершился принятием Сеуль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31 мая завершился работу саммит «Партнёрство для зелёного роста и глобальных целей до 2030 года» (Р4G). По его итогам была принята Сеуль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В ней участники саммита признали, что клима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является глобальной угрозой, оказывающей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на экологию, но и на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экономикой, социальными аспектами, безопасностью и правами человека. В качестве методов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климата указаны удержание повышения температуры земли в пределах 1,5 градусов, ускорение процесса перехода на возобновляемые источники энергии и борьба с пластиковыми отходами в океане. В ходе «Диалога лидеров», состоявшегося перед закрытием самми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решении проблем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не может быть границ. По его словам, развитые и развивающиеся страны должны совместно работать в достижении нейтрального уровня выбросов углерода. В Саммите Р4G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70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и правительств, а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Пхеньян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Сеул призывает Пхеньян и лич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ен Ына вернуться за стол диалог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31 мая встречи с депутат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провинции Чечжудо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недавний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в Вашингтоне создал благоприятный климат для возобновлен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в тот же день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над воссоединением и улучше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инистр сообщил, что Сеул в конце июня сделает важный шаг, чтобы изменить текущую ситуацию.

Глава МИД Китая встретился с послом КНДР

Китай и КНДР будут укрепля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дружбу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им связям. Как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Синьхуа, этом было заявлено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27 мая в Пекине встречи члена Госсовета КНР,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Ван И с послом КНДР в Китае Ли Рён Намом. Ван И отметил, что Китай готов вместе с КНДР претворять в жизнь важны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достигнутые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двух стран,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двух народов и вносить позитивный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По его словам, Китай поддерживает стремление КНДР к развит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улучшению жизни людей,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 оказывать КНДР посильную помощь.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и Рён Нам заявил, что КНДР намерена укрепля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дружбу с Китаем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сообщает агентство Синьхуа.

В РК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вакцинации

С 1 июня для полностью или частично привитых от COVID-19 снимаются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 близки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о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ляет максимум 8 человек. Начиная с июля, привитые первой дозой вакцины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Привитые двумя дозами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соблюдения запрета на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с числом участников более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вакцинации, объявленной 26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до конца июня не удастся привить 13 млн человек, программа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вакцинации может быть пересмотрен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борьбе со стихийными бедствиями, чрезвычайными ситуациями и катастрофами Сон Ён Рэ.

Мегахит группы BTS 'Dynamite' набрал 1,1 млрд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Мегахи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бойз-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Dynamite набрал 1 млрд 100 млн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став третьим музыкальным видео группы, достигшим данного рубежа. Ранее его достигли видеоклипы песен DNA и Boy With Luv. Группа BTS недавно выпустила свой второй англоязычный сингл Butter. Музыкальное видео Butter собрало 108 млн 2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на YouTube за первые 24 часа после выпуска, превзойдя собственный рекорд группы в 101 млн 100 тыс. просмотров, установленный Dynamite. Ещё одним рекордом стали 3 млн 900 тыс. одновременных просмотров Butter. Их число для Dynamite не превышало 3 млн.

(RKI)

Джо Байден и Мун Чжэ 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21)

Стороны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духу межкорейской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и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овместного заявления в Сингапуре 2018 г. Байден заявил о своей поддержке усилиям Муна по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ого диалога. Это было крайне важно для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пытающегося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с Пхеньяном.

Впрочем, Джо Байде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журналистов, тут же сказал, что он будет встречаться с Ким Чен Ыном только после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консультаций на рабочих уровнях и только тогда, если Ким изъявит готовность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Если называть вещи своими именами, то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можн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е ожидать.

В ответ на американские уступки южнокорейцы подписались под важностью трехсторонней координации усилий в формате США-РК-Япония.

Одновременно созд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южнокорейцы значительно уступили по части "китайского вопроса". Хотя слово "Китай" в совместном заявлении Байдена и Муна не было ни разу упомянуто, но было заявлено о координ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ЮВА" 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идения "свободного и динамичного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явно по настоянию США в заявлении появилось выражение о поддержке и важности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включая QUAD. Последняя имеет явно антикитайску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а потому это вряд ли понравится Пекину.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заявлен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США и РК по технологиям связи 5 и 6-го поколения, полупроводникам, обеспечению стабиль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цепочек и т.д. Крайне важным стало отдельное заявление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Samsung Electronics, SKInnovation, SK Hynix, LG Energy Solutions, которые пообещали в ближайшие годы вложить в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чти 40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 39,4 млрд. долл. Проекты затронут индустр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ьютерных чипо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батарей для электромобилей, новых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втомобилей и других. Для США, которы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свое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 Китаем создают у себя в стране собственные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а также развернули полноценную 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войну с КНР - это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подарок. Не случайно Байден прямо в ходе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опроси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стать и лично начал им аплодировать в знак благодарности. В общем, США заручились полной поддержко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которые из которых (тот же Samsung Electronics) являются мировыми лидерами по ряду ключевых сегмент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мпьютерных чипов.

З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ент стоимостью в 40 млрд долларов инвестиций США согласились полностью снять вс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а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сфере космоса,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е, включая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по получению заказов на рынках третьих стр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ая Корея, которую США в течение 42 лет ограничивали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ракет, теперь получила полную свободу как в сфере создания боевых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так и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для вывода спутников. "Мы наконец-то разорвали ракетные оковы", - радостно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эту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Мун Чжэ Ин.

США согласились немедленно поставить в Южную Корею препарат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торых хватит для вакцинации всех 550 тысяч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о словам Байдена, это будет сделано "для соб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а также для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нтактирующих с ними солдат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Затем уж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в присутствии Мун Чжэ Ин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Samsung Biologics и американская Moderna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а также разворачива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изводства вакцины Moderna. Таким образом, Южная Корея вплотную приблизилась к тому, чтобы стать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мировых центр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вакцин от COVID-19.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налажен выпуск трех препаратов - AstraZeneca, Novavax и российского Sputnik V, а Moderna станет четвертым. Корея ж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гарантировала себе участие в прибыльном бизнесе, а также относительную стабильность поставок вакцин

для себя, с чем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ыли проблемы и что стало нервировать корейских избирателей.

Среди прочих упомянутых направлений, по которым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договорились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 реагирование на глобальное изменение климата, снижение выброса углекислого газа,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типа ВТО, ВОЗ и прочие сферы. Мун также пригласил Байдена лично посетить Южную Корею в удобное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время.

Что все это значит?

Результаты саммита, как было уже сказано, имеют широкое приложение не только для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о и для региона, а также глобаль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США заручились гарантиями со ст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на огромные инвестици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менно по т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где Вашингтон решил "сдерживать" Пекин. Хотя, повторимся, Китай нигде прямо не был упомянут, но Южная Корея завуалированно дала понять, что по важнейшим вопросам она будет на стороне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Особо стоит отметить включение в текст заявления инициативы QUAD. Если ранее Сеул всячески отрекся от возможности присоединения к этому антикитайскому механизму, то теперь Мун подписался под "поддержкой" данной структуры.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РК в той или иной форме вскоре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этой инициативе.

Немалые последствия дл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аланса сил будет иметь отмена всех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Самые "мир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этого решения - активизация РК по части создания ракет-носителей и мир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смоса, то есть та же Россия получает еще одного конкурента в этой сфере.

Но крайне существенны также и воен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США и РК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я об ограничениях в 1979 г. и с тех пор четыре раза пересматривали их,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я возможности Сеула в данной сфере. Согласно последним из них от 2017 г., РК имела право созда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дальностью не более 800 км с боеголовками любого веса. 800 км хватало Югу,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поражать всю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Теперь же это ограничение отменено, и Южная Корея сможет создавать баллистические ракеты с большим радиусом действия.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скорее всего, начнет создавать ракеты, как это характеризуют в Сеуле, "для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иные, помим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угрозы" - то есть это своего рода "привет" для Китая, России и Япо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теперь строят планы создания ракет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а также баллистических ракет подвод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Безусловно, отмена данного ограничения имеет большое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ая имеет теперь полный и неограниченный "ракетный суверенитет", но сложно не вспомнить про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США и Китая. Учитывая статус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военного союзник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то Вашингтон через расшир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ей РК увеличил и свои рычаги воен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КНР. Вряд ли это с радостью воспримут в Пекине, где, насколько известн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критически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итоги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 учетом запланированного на текущий год визита лидера КНР Си Цзиньпина в Южную Корею, китайцы теперь будут ломать голову над тем, как им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все эти достижения Вашингтона.

Кроме того, почти гарантированно, любые новые успехи и достижения РК по части ракетных технологий - хоть мирных, хоть военных - заставят активнее действовать и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хеньяне всегда риторически спрашивали: "Если другим можно, то почему нам нельзя?". Теперь же, когда можно Югу, то Север точно не будет молчать. Так что можно предсказать гонку ракетных вооружений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тоит также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и на заявл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и США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сфере мирного атома. РК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ытается войти в ряды держав,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ют свои услуги по ча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Теперь же политический вес и возможность США по части оказания давления на своих союзников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очень пригодя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м строителям АЭС.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ША при помощи Южной Кореи формирует нового конкурента российскому "Росатому" в плане борьбы за заказы на атомные реакторы в Европе,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ЮВА и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К)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на Сахалин с туристами из Москвы начнут выполнять в июле

Цена недельного тура будет значительно ниже нынешней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господдержки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Об этом сегодн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прошедшей на борту теплохода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рассказали глава Ростуризма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TUI Россия Тарас Демура.

– Ключевая задача, чтобы самые дальние, но самые желанные и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уголки нашей страны были доступны. Будет выделена субсидия,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стоимость недельного тура на Сахалин будет начинаться от 4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эту сумму входит перелет, трансферы до гостиницы, проживание, завтраки, экскурсии. Это более чем конкурентная стоимость,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ниже, чем то, что мы видим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 – это сильный бренд, ярк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магнит и место, которое мечтают посетить миллионы туристов, и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может это сделать, – отметила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По словам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TUI Россия Тараса Демуры, первый чартерный рейс на Сахалин планируется 4 июля. Компания вед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сахалинскими туроператорами, чтобы клиенты могли заранее выбр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пакетный тур.

– Считаю,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спеха всего проекта будет зависеть даже не от TUI, а от тех компаний, которые уже сегодня работают на Сахалине. Поэтому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местных бизнес: давайте любить туристов, обнимать их. Не прячьте радушие, давайте будем делиться им, ведь очень трудно второй раз произвести хорошее первое впечатлени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Тарас Демура.

У туристов, прибывающих чартером на Сахалин, будут боль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тить и другие город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Это позволяет широкая сеть морского и авиа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ая создается в регионе.

– Уже 2 июня на Курилы отправится теплоход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на котором мы с вами сейчас находимся. А вместе с «Павлом Леоновым», который тоже вскоре прибудет в регион и «Игорем Фархутдиновым», мы с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частоту рейсов. Кроме того, именно у нас в регионе создана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не только туристам, но и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Именно для них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и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что уже с июня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морские экскурсии на катамаранах. Два новых 12-местных судна будут возить туристов на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мыс Крильон и вдоль Тонино-Анив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ройти углубленно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 субботам

Около 6 тысяч островитян уже прошли комплекс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здоровь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регионов, в котором для пациентов возраста 65+ расшир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бесплат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смотра.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в области увеличено число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центров, также открылись пунк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исследований уз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Поликлиника №4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ла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котором пациенты «серебряно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 узкому профилю. Программы разработаны с учетом специфики здоровья таких посетителей. Жительница одного из спальных районов Нина Арефьева оказалась на таком приеме случайно. Женщина ухаживает за клумбами в своем дворе. Подъем тяжестей привел к болям в спине. После обращения к терапевту южносахалинк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ая спина».

– Анализы взяли, прошла невролога, ревматолога, сделали рентген. Врач назначил физиолечение, таблетки. Цветы уже все высадила, так что самое время здоровьем заняться. К тому же доктор посоветовал упражнения, как расслабляться и в какой позе правильно заниматься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чтобы не было ухудшений, – поделилась Нина Арефьева.

Другая частая проблема, связанная со скелетом и состоянием костной ткани – остеопороз. И по этому профилю в поликлинике тоже разработали свою программу. Кроме того, здесь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по выявлению патологий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ой системы и уролог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 Начинать прием на углубл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с нескольких человек, сейчас уже принимаем по 50 пациентов в день. По отзывам – люди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Мы подробно изучаем ситуацию и принимаем решение по дальнейшей тактике лечения на основании комплекса данных,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поликлиники №4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Ефимов.

Пройти обследование можно также в поликлинике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ом центре,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 Тымовском. В связи с высокой потреб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в углубленном скрининге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медосмотров и по субботам.

Записаться на комплексную диагностику можно у

своего врача в поликлинике. Специалист поможет определить, куда необходимо направить пациента – на расширен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рганизма или человеку достаточно узкопрофи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этом году такие медицинские центры откроются также в Охе, Холмске и Поронайске.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провести активный отдых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крывает летний сезон и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различным спорти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6 июня пройдут два вело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я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открытия сезона маунтинбайка-2021, а именно – гонка в гору от Аллеи Славы до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бытие для любителей экстрима – «ВелоЛавина» – массовый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на горных велосипедах с вершины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до нижней площадки Комплекса.

Традиционно вместе с захватывающими экстремальными соревнованиями на комплексе начнутся и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катанию на горном велосипеде с предоставлением инвентаря. Тренировки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опыт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 Я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миром маунтинбайка и деятельностью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й клуб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в прошлом сезоне. Первый раз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открытой тренировке в августе –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начал кататься активнее, узнал о маршрутах, помогал за ними ухаживать. Совместно с «Горным воздухом» клуб делает нужное дело – организует соревнования и тренировки, много уделяет внимания развитию маунтинбайка в регионе и работе с молодежью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ью в целом, повышению культур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атающихся на горных велосипедах. Жалею, что не начал заниматься этим раньше, – поделился Александр Савченко, врач-педиатр дет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ы.

5 июня всех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Зеленый марафон». Начать забег можно из любой точ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Завершится марафон экологической акцией по уборке склонов и высадке кустарников.

На прошлых выходных на средней станции комплекса стартовали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общей 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с мастером спорта России по гиревому двоеборью, победителем всероссийских турниров по рукопашному бою и современному панкратиону,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РФ Андреем Мирошниковым. В первый же день к тренировке присоединилось около 100 островитян. Утренние зарядки проходят каждое воскресенье в 10:30.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С 10:00 до 10:20 комплекс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есплатный подъем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жке.

–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по ОФП и друг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отличная идея! Мы всей семьей в воскресенье поднимаемся на среднюю площадк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для участия в зарядке. Тренировки позволяют укрепить мышцы и повысить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ма. Было бы здорово сделать еще спортплощадки с турниками и брусьями на средней и верхней станциях комплекса, – отметил южносахалинец Михаил Бизяев. – Занятия приносят свои плоды. Дочь Варвара (12,5 лет) – самая быстрая и выносливая из девочек в своем классе. Тимофей (9 лет) постоянно привлекается к спортивным мероприятиям от своего класса, играет за клуб «Омега-Сахалин», причем все матчи без замены. Младший сын Семён (4,5 года) недавно в саду удивил всех высок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в беге, метании мяча, прыжке с места и гибкости.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Семён сам захотел подняться на вершину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месте со взросл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тренировок!

Отметим, в этом сезон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родолжат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для юных беговелогонщиков, а также масса других детских и семей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ключая музыкальные фестивали,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е события, походы по экотропам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Подробнее с планом мероприятий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а также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комплекса.

С 15 июня стартует масштабный областной конкурс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1»

Во второй раз за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поборются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воего дела, лучшие учреждения и предприя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бедителей наградят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4 ноября. Условия, требования и сроки проведения масштаб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оргкомитет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ервый конкурс открыл множество творческих, энергичных, неравнодуш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о островная земля богата талантами, поэтому решено сделать конкурс ежегодным. На этот раз мы так же будем чувствовать тех, кто развивает образование, медицину, бизнес в родном регионе, приносит творческие и спортивные победы, занимается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м. О достижениях земляков должны знат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м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2021» вновь объединит людей самых разных профессий – уч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рачей и спортсменов, волонтеров и социаль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не толь-

ко жители, но и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лучших из лучших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в 31 номинации. Добавляется три новых.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звание «Лучшая компания рыбной отрасли», необходим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успехи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ежеевыловленной рыбы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овых номинаций также – «Туриз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Клима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де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стижения в сфере туризма и экологии.

Сокращается количество подноминаций – их будет 15 вместо 48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определят 41 победителя и 82 лауреата. Список номинантов пройдет через три стадии голосования: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экспертное жюри и народное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октябре.

Премия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учреждена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Организатором конкурса выступ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 июня сахалинцам и гостям острова станут доступны морские экскурсии на катамаранах

Два новых 12-местных судна будут возить туристов на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мыс Крильон и вдоль Тонино-Анив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существлять перевозки будет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мпания-инвестор с многолетним опытом, которая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сь в каче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оператора.

Новые катамараны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строены из композитных,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ба судна обладают повышенной мореходностью и устойчивостью, оснащены современными систем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 Наша задача – сделать рынок морски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еревозок более комфортным, разнообразным, а главное безопасным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шаг на пути к данной цели. Мы также 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и готов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другими инвесторами, желающими осуществлять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Ромащевский.

С запуском новых катамаранов станет доступен один из самых желанных у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маршрутов – остров Монерон из Невельска, куда ранее доставить туристов было проблематично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подходящего транспорта.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погулять по природному парку, окруженному прозрачно-голубой водой, увидеть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множество гротов и огромные птичьи базары.

Такж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аршруты: Невельск – мыс Крильон, Корсаков – маяк Анива и Охотское – маяк Анива.

– Мы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работали эти маршруты. Кроме того, рассматриваем и друг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торые будут охва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юг острова, а также его центральную и северную часть. Потому что спрос на дан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лоссальный,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Центр морских путешествий» Бахт Мавланов.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после получения всех необходимых документов, катамараны своим ходом отправятся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 Сахалин, где заступят на маршруты,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в первый числах июня. Точное расписание и стоимость экскурсий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Цена буд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ршрута – от 5 до 10 тысяч рублей.

48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и за объект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Эт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данные оператора единой платформы 65.gorodsreda.ru, на которой шло онлайн-голосовани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Голосование завершено. Сейчас оператор единой платформы проводит проверку на уникальность и корректность поступивших голосов. После чего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 итоговый протокол с результатами.

– Власти районов должны будут включить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в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дл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в 2022 году проекты, признанные победителями. В течени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Если проект масштабный, рассмотрим реализацию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Загоровская.

Напомним, в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должалось более месяца,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выбирали объекты, которые, по их мнению, нужно благоустрои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выбор было выдвинуто 43 проекта.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определено в среднем по две-три территории. Результаты станут известны в ию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공동 성명]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다

과거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남성(재외국민2세)은 한국에 영주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병검사가 연기되고, 그 상태로 병역의무연령(37세)에 달하면 병역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다가 2011년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 2세 인정 요건이 엄격해졌다. 본인과 부모 모두 본인이 18세가 될 때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중 '통산 90일' 이내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18세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머무른 경우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 국외이주자 전환 후 영리활동을 하거나 1년 내에 90일 이상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바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화되었다. 2011년 개정 당시에는 1994. 1. 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었는데, 급기야 2018. 5. 28.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면서,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또한 2018. 5. 29.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을 체류하면 재외국민 2세 자격이 취소되고 국외이주자로 전환되어 영리활동과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제 출생년도를 불문하고 2018. 5. 29.부터 3년간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2021. 5. 28.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취소될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병역법 시행령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위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에서 직업을 갖거나 결혼해서 정착하고 있던 재외동포 후손들은 예상치 못하게 병역의무와 징집의 대상이 되었다. 시행령 적용 대상인 재외동포 3, 4세의 경우(1993. 12. 31. 이전 출생자), 2018. 5. 29.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한국에서 생활하면 재외국민2세 자격이 취소되어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되고,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를 할 수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고, 자신이 있을 곳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받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던 혹은 할 예정인 경우에는 영리활동 즉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사실상 제한받는다.

무엇보다 재외동포 3, 4세들은 부모 또한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낯설기만한 한국 생활과 언어에 적응하는 데만도 수년이상 걸리는데, 6개월 또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의 체류를 이유로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군대 조직생활에 편입될 경우 제대로 적응을 한다는 것은 극히 요원하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내국인들은 국내에 머물면서 병역연기가 가능하나, 재외동포들은 병역연기를 하려면 체류국에 나가야 한다. 내국인들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나, 재외동포들에게는 그런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타국적을 택한 재외국민들은 국내에서 동일한 활동을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이나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데 오히려 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군대에 가야 한다. 그들의 부모도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거나 국내 거주 친척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휴가를 나와도 찾

아갈 곳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시행령대로라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국에서는 체류기간을 준수하고자 출입국을 반복하는 사이 거쳐야 하는 14일의 자가격리기간도 획일적으로 체류허가기간 6개월 및 3년에 포함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령으로 인해 실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더욱 단축되는 것이다.

재외동포들의 역사와 처지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히 산업화 이후 경제적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동포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가게 된 재외동포들은 해방 이후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과 여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다.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국적을 유지해 온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사실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오지 않았다. 투표권도 얼마 전부터야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을 뿐이다. 국민으로서 법적지위도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의무만을 강제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2세의 자격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확장한 것은 재외국민2세도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생연도(1994. 1. 1.전후)에 따라 병역의무에 차이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내국인의 경우와는 항우해 온 권리가 다르고, 거주국가의 영주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스스로 택한 정체성이라 하더라도 그간 부실한 재외동포 정책 속에서 교육과 문화 등 정체성 유지의 노력이 오롯이 개인과 가정에만 전가되어 왔음에도, 적절성의 근거도 모호한 3년이라는 단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주권을 포기하고 병역연기를 하거나,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고립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한 것이다.

개정 병역법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재외동포들은 위와 같은 여러 이유들로 자신과 후손들이 낯설고 생경한 병역의무를 부여받지 않기 위해서 한국적을 포기해야 할 처지가 된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생률로 인구 절벽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때에 세계적 영향력 확대라는 국가비전과 시책에도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사 재외국민2세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부모, 조부모세대부터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고자 애써왔던 재외동포들의 역사적 맥락, 재외동포와 그 후세대들에 대한 부실한 지원 정책 등 현재 재외동포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획일적인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의 상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살피고 이를 반영하여 '재외동포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실한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지구촌동포연대 KIN

러시아 한국문화원, 현지에 한국 웹툰·애니메이션 소개 웹툰 VR전시장에 8천여명,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상영회에 1천여명 방문 등 뜨거운 반응

주러시아한국문화원(원장 위명재)은 '2020-2021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문화제 'K-FEST 2021'(5월~6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동시에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웹툰 전시회'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 ▲신세계냥 ▲이태원 클라쓰 ▲유미의 세포들 등 4편으로,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거나 뛰어난 작품성과 개성으로 한국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국내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출품한 우수한 작품 중 장편 6편, 단편 7편 등 총 13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지인들이 관람하기에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인기 한국 드라마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소나기 ▲기기괴괴 성형수 등의 작품과 메시지 전달력이 뛰어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호랑이와 소 ▲아홉 살의 사루비아 ▲먼지아이가 ▲악심 등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주러시아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 대한 러시아 현지인들의 반응은 한 달여 만에 웹툰 VR전시장 방문객이 8천여명, SNS 등 온라인 총 조회수가 9만 건 이상에 달하고, 애니메이션 오프라인 상영회에 1천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한국 웹툰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현지 관심을 반영하듯 러시아 문화 일간지 '바슈 도수그(Vash Dosug)' 통신은 지난 5월 18일에 이번 웹툰 전시회에 소개한 4개 작품의 작가들과의 서면 인터뷰를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통해 러시아에서 K-팝, K-드라마, K-영화 등 대표 한국문화 콘텐츠 외에 새로운 분야의 콘텐츠를 현지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한국 웹툰 전시회'와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관련 콘텐츠는 주러시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info-korea.ru) 또는 SNS(Vkontakte: www.vk.com/kculturerus), 페이스북: www.facebook.com/kcultureru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culturerus, 유튜브: www.youtube.com/kcultureru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제2차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중앙아 최대 교역국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월 27일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산하 제2차 워킹그룹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에너지, 교통인프라, 과학기술, 농업·환경,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카자흐스탄 워킹그룹은 2019년 4월 양국 정상들의 합의사항과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점검·이행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합의 하에 설치된 협력채널로, 이번 회의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최됐다.

한국시간 오후 4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카자흐스탄을 화상 연결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농림부, 환경부, 국가기록원,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 등 16명이,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산업인프라개발부, 무역통합부, 에너지부, 디지털발전혁신항공우주산업부, 농업부, 생태지질천연자원부, Kazakh Invest, Kazakh Export 등에서 16명이 참석했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먼저 양국이 기존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 틀 안에서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 건설, 아랄해 복구사업 완료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알마티 현대차 조립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연간 3만 대 규모에 달하며, 중앙아 지역으로 수출돼 한국의 부품 수출 및 카자흐 현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알마티 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은 우리나라가 중앙아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양국 간 발전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중요 사례이다.

또한 양측은 크즐오르다주 아랄해 산림복원 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고 아랄해 유역 사막화 지역(13,300ha)에 짝사슴을 식재하고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조림 분야 경험을 공유했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프로젝트 수주 및 MOU 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주제·내용 변경, 통합·재검토 등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10개 분야 58개 사업을 7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개편하고, 주요 사업을 선별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험 공유, 고문서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이 추가되고, 한국수입협회-Kazakh Export 간 협력, 국제항공허브 조성 프로젝트 참여 등은 제외됐다.

이어 양측은 합금철 전기로 공장 건설, 카자흐스탄 내 CNG 충전소 추가 건설 등 신규로 개발되는 양국 공동 협력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합금철 전기로 공장 건설은 2020년 11월 제9차 공동위를 계기로 기본 설계계약이 체결됐으며, 금년 중 설비 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은 금번 워킹그룹 회의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합의를 갱신 체결했고, 금년 중으로 양국 간 기록물 상호 제공을 위한 부처 간 MOU 체결에 합의했다.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переходит на летнее распис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ботанический парк перешел на летнее расписание.

С 1 июня зоопарк открыт для посещения с 10:00 до 20:30. Приобрести входные билеты можно будет в будние дни с 10:00 до 19:30,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 с 10:00 до 20:00.

По летнему графику работают:

· площадка "Деревенское подворье" — вторник — воскресенье с 11:00 до 16:00; понедельник — санитарный день;

· экспозиция "Аквариумы" — вторник — воскресенье с 11:00 до 20:30; понедельник — санитарный день;

· экспозиция "Экзотариум" — ежедневно с 11:00 до 20:30;

· экспозиция "Приматы" — вторник — воскресенье с 11:00 до 20:30; понедельник — санитарный день.

К услугам посетителей на входной зоне работают билетные терминалы, а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 круглосуточный сервис онлайн-покупки билетов, сообщает зоопарк.

Сахалин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антенной школе' обучат

6월 1일부터 8일까지 'Сахалин Артек'(Анива 지역) 캠프지에서 <안테나 학교> 전 러시아 경연 지역 예선이 진행된다.

대회에 주내 10 지역에서 1팀에 8명으로 구성된 12팀이 참가한다. 13세-16세 연령의 학생들은 여러 날 동안 훈련 과정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응급 처치법, 자연 조건에서 생존 훈련 완수, 체력 연마, 빠른 판단력과 기민성 개발, 독립심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갖추게 된다.

전통적으로 '안테나 학교' 프로그램의 필수 종목에는 합동 소방 릴레이, 수상 구역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 생존의 길 개척과 합동 군사 훈련과 같은 경기가 있으며 또한 벽신문 제작과 요리 경연도 펼친다. 주 예선 주최는 주 교육부 산하 지역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 러시아 비상대책부 사할린주 관리국이다. 사회적 협력으로는 폴라코브 수색구조단, 산림 및 수렵경제부, 유즈노사할린스크 민방위 및 비상사태국, 러시아 구조연맹 사할린 지부가 나섰다.

모든 경기 결과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품을 수여하고, 연령별 2팀씩 선정된 우승팀에게는 6월13일 - 17일까지 자바이칼 변경에서 열리는 '안테나 학교' 지역 간 경기 출전권이 주어진다고 학교 밖 교육활동센터가 전했다.

Юные сахалинцы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в "Школ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 1 по 8 июня на базе палаточн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тек"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пройд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й "Шко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нё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12 команд по 8 человек из 10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 ходе многодневных испытаний школьники в воз-

расте 13-16 лет учатся правильному поведению в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ях,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отрабатывают навыки выживания в природных условиях,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свою физическую подготовку, развивают ловкость, смекалку, становятся боле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и и способными принимать ответственные реш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обязательными видами программы "Школы безопасности" яв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комбинированная пожарная эстафета,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е работы на акватории, маршрут выживания и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е силовое упражнение.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у входят конкурсы стенгазет и поваров.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областного этапа являются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в лиц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и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циаль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выступают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й отряд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министер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РОССОЮЗСПАСа.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соревнований все призёры получают дипломы и подарки, а победители в сво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две команды) будут выдвинуты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оревнований "Шко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с 13 по 17 июня в Забайкальском крае,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